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차별화된 친환경 특수도료 개발로 도료업계의 World Leading Company를 꿈꾸는
듀라케미(주)의 김동규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1. 대표이사님께서서는 친환경 특수도료에 대한 연구를 언제
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도료 제조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1999년, 듀라케미를 설립하여 친환경 특수도료가 차세대 주 Item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도료제조를 시작하였으며, 대형 Paint Maker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Concept, 즉 차별화된 친환경 특수도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듀라케미(주)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주 생산품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포장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저마찰형 방오도료, 선박 및 철 구조물 특수도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 신기술 및 각종 국가 공인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는 없는 신 개념의 친환경 도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지난해 베스트브랜드 대상이었던 '듀라스키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 회사의 주 생산품인 미끄럼방지포장재(DURA-SKID)는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344호 지정,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한국선급인증,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 친환경표지인증, 품질보증 Q마크 인정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매년 조달청 발주기준 40%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 미끄럼방지제 부분 "BEST BREND 대상"으로도 선정된 제품입니다.

또한 최근 출시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포장재(제품명: DURA-BIKE)는 기존의 자전거도로에서 나타나는 크랙, 황변, 미끄럼 안전사고 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제품으로 당사가 보유한 건설신기술과 특허(5건) 및 실용신안(3건) 등 미끄럼방지관련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를 접목하여 친환경 및 충격흡수성이 뛰어나 피로감이 적고 색상 및 디자인이 다양하며 특히 기존 제품에서 볼 수 없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부여하여 젖은 노면에서도 안전사고



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듀라케미는 사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 신기술(NET)과 30여종의 특허와 각종 국가 공인인증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 임직원 50명 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 13명)에 매년 매출의 8~9%를 R&D비용으로 투자하여 신기술개발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국내 3대, 세계 10대 Paint Maker를 목표로 하는 양적인 성장과 세계에서 저희 회사만 보유한 신기술개발로 질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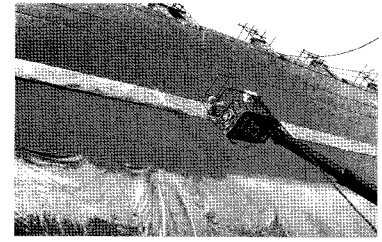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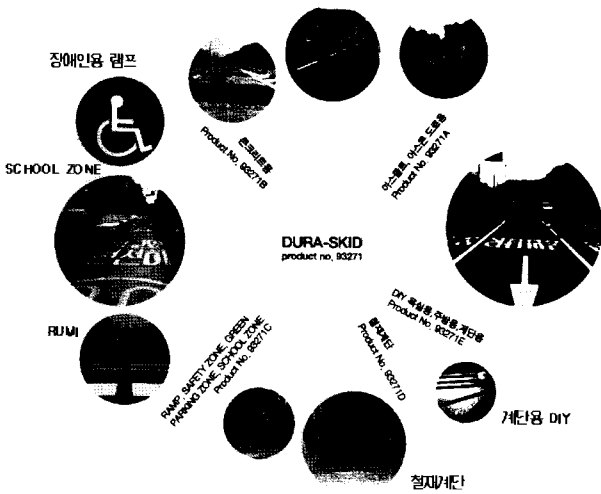
5.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듀라케미(주)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도료의 정의에서 벗어나 IT, 나노기술 등과 융합된 도료와 친환경의 대표적인 TREND인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방식기능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료업계에서 World Leading Company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DU-SLIP 코팅완료



6.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옛 말에 사람은 자신이 본 데로 보고 듣는 데로 듣고 생각하는 데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이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많은 독서와 생각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그릇을 키우기 위해 항상 자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항상 자신의 미래에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생각으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들리는,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명특허 2009. 8

